

# 科總 7 年을 돌아본다

## —國內科學技術團體의 總本山—

### 과학기술개발과 民族中興에 一翼 담당

- ◎……國內의 科學技術界를 總망라한 學會, 協會 및 產業界와 研究團體……◎
- ◎……의 集合體인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以下 科總)가 9월 24……◎
- ◎……일로 創立 7鬪을 맞는다. 이제 겨우 創立7周年을 맞는 科……◎
- ◎……總은 年輪으로 따져볼 때 결코 完熟한 團體라고는 할……◎
- ◎……수 없다. 그러나 科總은 그동안 “科學韓國”을 向……◎
- ◎……한 굳건한 信念과 “祖國近代化”를 위한 불붙……◎
- ◎……는 情熱로 일해왔으며 또한 成長해 왔다. ……◎

#### ▲▲ 科總이 組織되기 까지 ▲▲

現代는 科學文明의 時代이다.

오늘날 한 나라의 科學水準은 그 나라의 國力을 評價하는 尺度인 동시에 經濟發展과 生活向上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고 있음이 事實이다.

지금으로부터 7年前인 1966년——

政府는 제1차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성공리에 完遂하고 제2차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의 短縮·完遂를 目標로 하여 總力을 기울이던 때였다. 이에 國內 科學技術者들은 政府의 課題인 高度의 經濟成長과 近代化를 阻害하는 主要原因이 落後된 科學技術에 있음을 重視하고 그해 5월 19일 “發明의 날”을 期해 “第一回 全國科學技術者大會”를 開催, 그 자리에서 國內科學技術團體의 有機的 結合으로 科學技術振興의 體係인 計劃 및 實踐을 通하여 國家發展에 奇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를 組織하기로 滿場一致의 合意를 보았다. 이로써 當時 國內科學技術의 振興 育成에 主軸을 맡았던 科學振興協會와 技術總協會가 發展의 解體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科總은 이들을 흡수하여 科學技術界에 있어서의 一元化된 團體로 結成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후 斯界 各協會, 學界의 總本山 機構인 科總을 組織코져 1966년 6월 17일에는 創立 準備委員 43名을 推戴하여 6월 24일에는 創立 準備委員會를 開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委員會의 規定을 審論決定한 후 金允基委員長 以下の 任員을 選出하였다. 또 6월 29일에는 第2次 委員會를 開催하여 定款案을 審議한 후 9월 15일에 다시 第3次 準備委員會를 가져 各學會·協會의 意見을 最大限으로 參酌한 定張案을 最終의으로 修定하고 創立總會日字를 9월 24일, 場所는 新聞會館으로 決定하였다.

이어서 1966년 9월 24일 新聞會館에서 歷史的인 創立總會를 開催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그해 12월 26일 經濟企劃

院長官으로부터 社團法人으로 認可를 받았고 그 다음해인 1967년 1월 21일에는 서울地方法院에 社團法人으로서의 登記를 畢함으로써 完全한 法人團體로서 資格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가입 단체는 71個 學會이고 會員數는 52,942명이었으나 이것이 67년에는 83個 단체로 55,744명이 되고 68년에는 92個 단체 57,740명 69년에는 109개 단체 63,179명 70년에는 112개 단체 총회원수는 63,498명으로 增加되었으며 73년 현재로는 總 124個 단체 會員수 7만여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그 分野別로 보면 理學分野가 17個學會, 工學分野가 14個學會, 農水産分野가 43個學會, 綜合分野가 38個 團體로 되어있다.

또 1966년 12월 5일, 會長團은 명예회장 尹日善博士外 네분을 모시고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여 그간의 경과 보고와 아울러 科學기술 진흥에 더욱 힘써 줄 것과 科學기술 행정의 一元化를 위한 專擔部處의 新設 및 科學기술 會館建立 등을 건의 하는 등 科總任員들은 會員團體의 意見을 綜合 詰證하여 政府에 알리고 또한 政府施策을 효율적으로 推進시키기에 힘을 기우렸다

#### ▲▲ 科學技術人的 祝祭日 ▲▲

##### — 科學의 날 —

그간 科總은 또 ① 科學技術 振興을 위한 施策의 審議 및 建議 ② 國內外 科學技術의 交流, 紹介弘報 및 出版 ③ 國內外 科學技術團體間의 協同과 活動의 獎勵 및 調整 ④ 科學技術會館의 運營 ⑤ 科學技術振興을 爲한 諸般會合의 主權 및 周旋 ⑥ 其他 本會 目的達成을 爲한 事業을 逐行하여 왔다.

특히 科總은 “科學의 날”을 제정하도록 政府에 건의 科學技術處가 發足한 4월 21일로 合意決定했다. 이 날을 맞아 科總은 全國科學技術人的 士氣를 드높이고 공적을 찬양하여 科學技術에 대한 社會의 認識을 再強化시키는 한편 全國科學技術者大會를 開催, 科學기술자가 대등단결하여 民族中興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科學기술자 처우개선과 研究費增額 등을 건의했다

또 “科學의 날”의 重要行事로 有功科學者 技術者에 대한 포창 제도를 두었으며 이제까지의 科學技術賞 受賞者 名單은 다음과 같다.

<1966年度 (第一回) 受賞者>

大統領賞      李範純(工學)  
 國務總理賞    李基寧(理學)  
 科學技術處長官賞    韓龜東(藥學)  
 本賞            表景祚(家政)  
 "                愼武賊(工學)  
 "                李景福(農學)  
 振興賞        徐大錫(特許)  
 "                朴景福(農學)  
 "                鄭然泰(物理)  
 "                李榮來(教育)

<1969年度 (第二回) 受賞者>

大統領賞      羅世振(醫學)  
 國務總理賞    李正煥(地質)  
 科學技術處長官賞    韓昶烈(農學)  
 科學技術處長官賞    李載坤(工學)  
 科總聯合會長賞    金東俊(醫學)  
 振興賞        韓俊澤(理學)  
 "                許鍾秀(海洋)  
 "                朴鍾泰(工學)  
 "                李文炯(農學)  
 "                吳相世(工學)

<1970年度 (第三回) 受賞者>

大統領賞      姜永善(理學)  
 國會議長賞    具廷會(理學)  
 大法院長賞    吳鎭燮(醫學)  
 國務總理賞    張永哲(農學)  
 科學技術處長官賞    李 樑(工學)  
 科學聯合會長賞    吳鉉緯(工學)  
 振興賞        朴周錫(水產)  
 "                李鍾秀(言論)  
 "                朴鉉祐(工學)  
 "                許 填(工學)

<1971年度 (第四回 受賞者)>

大統領賞      張世憲(理學)  
 國會議長賞    金丙運(工學)  
 大法院長賞    韓仁圭(영양학)  
 國務總理賞    金 喆(醫學)  
 科學技術處長官賞    廉永夏(工學)  
 "                金燾喆(工學)

"                玄源福(言論)  
 科總聯合會長賞    禹源植(藥學)  
 振興賞        姜승호(醫學)  
 "                姜孝源(工學)

<1972年度 (第五回) 受賞者>

大統領賞      李光秀(醫學)  
 國務總理賞    金貞欽(理學)  
 大法院長官賞    禹亨疇(工學)  
 科學技術處長官賞    崔浩英(工學)  
 科總聯合會長賞    金熙喆(工學)  
 振興賞        조재영(農水產)  
 "                정병선(工學)  
 "                丘聳燮(太平洋化學社長)  
 "                南宮浩(학생과학 社長)

<1973年度 (第六回) 受賞者>

大統領賞      鄭文基(農水產)  
 國會議長賞    張信堯(醫學)  
 大法院長賞    尹世元(理學)  
 國務總理賞    田豐鎭(工學)  
 經濟企劃院長官賞    康明順(工學)  
 科學技術處長官賞    全相運(理學)  
 振興賞        鄭萬基(새마을지도자)  
 "                慶北學生科學館  
 "                國際電機企業株式會社  
 "                孫永壽(전파과학사 사장)

▲▲ 學術活動支援에 교량적 역할 ▲▲

뿐만 아니라 科總은 傘下團體인 理學 工學·農水產 保健 綜合의 5個部門 124個學會에 對한 學術活動 支援을 위한 政府補助 金을 交付하는 등 여러학회와 단체의 심부름을 맡아하고 있는데 72년도의 보조금 교부액을 살펴보면 理學部門에 25% (2,850,000₩) 工學部門에 30% (3,330,000₩) 農水產部門 21% (2,350,000₩) 保健綜合部門 24% (2,700,000₩)로 總1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補助對象이 되는 學會로는 學會 學術活動이 活發하고 實績이 認定되는 學會로서 主로 學會誌 發刊, 國際 및 國內 學術發表會를 지원해주고 있다.

▲▲ 科學技術人的 숙원 ▲▲

그리고 科總은 主要事業의 하나로 과학기술 회관 즉 과학기술센터를 建立중이다.

이 會館의 建立은 7만여 會員의 宿願이요, 全體 과학기술이 갈망하고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1969년을 “會館建立 추진”의 해로 定한바 있는 科總은 그 후 계속 이 사업에 熱과 誠을 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수차에 걸친 理事會, 企劃委員會 기성회를 열어 意見을 모으고 이에 따른 會館建立 大地 물색을 위해 수개처를 답사 내지 교섭한

끝에 70년 3월에는 서울 成東區 驛三洞 山 25~26에 垆地 2,500 坪을 確保 具體化시켰다.

그후 建立規模 및 資金調達計劃을 세우는 한편 71년 4월 21 일에는 드디어 起工式을 갖게 되었다.

그해 8월 31일에는 「한국과학기술센터」 建築허가원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10월 28일에는 한국과학기술센터 建立 제1차 工事 계약을 韓國建築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로부터 1주일 後인 11월 5일에는 서울시에 센터 건립 착공계를 제출하고 센터 건축 허가서를 받았으며 11월 12일에 센터 垆地측량을 서울시에서 완료했다. 그리하여 11월 18일에는 회장단과 大韓建築學會長 金正秀 教授가 센터 대지를 답사한 후 建物 위치를 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着工을 본 科學기술센터는 지난 9월 9일 현재 地下一層을 포함한 地上 8層까지의 骨造工事を 끝냈다. 오는 年末까지는 當初의 目標에 따라 地上 9층까지 骨造工事を 비롯한 屋上의 防水工事까지 「샷슈」유리 등 窓戶工사가 지 끝낼 예정이다.

이 센터가 完工되면 全國科學技術團體 및 學會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되므로 과학기술 및 정보의 신속한 交流가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產學紐帶強化 등 各分野에 劃期的인 效果를 견우게 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 ▲▲ 機關誌 “과학과 기술” ▲▲

科總은 또한 국내 과학기술 관계 단체 學會와 產業界의 現況 및 國內외의 科學技術界의 動向을 전달하는 媒介體로서 月刊雜誌 “과학과 기술”을 發刊 보급하고 있다. 科總內 編輯部가 주관되어 발행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誌는 1968년 1월에 그 創刊號를 냈으며 현재까지는 제 6권 제9호가 나와있다.

처음에는 국배판 120 page로 1년에 4번 季刊으로 發刊하다가 1969년부터 “畫報과학과 기술”로 개편 月刊으로 發行하였다. 그러나 畫報는 國內과학기술 단체 및 학회의 現況과 活動內容, 國內 우수 과학자들의 論文, 時評, 主張, 그리고 세미나와 학술심포지움의 內容등을 다루기는 미흡한 점이 많아 1972부터 月刊雜誌 “과학과 기술”誌로 發刊,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잡지는 주로 과학기술 단체 연구기관, 學會, 各大學校, 產業機關, 政府機關 및 個人에게 배부되고 있다.

#### ▲▲ 科學技術調查센터를 통한

##### 調查研究事業 ▲▲

또 1972년 1월 27일 科總은 附設 科學技術調查 센터를 設立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定款 第一章 總則 第四條7項(其他 本會 目的達成을 위하여 技術用役事業)에 의거하여 設立된 것. 科學技術에 관련된 調查研究事業을 실시하므로써 產業의 發展을 도모하고 技術用役 事業으로서 과학기술 진흥의 風土를 조성함을 目的으로 設立된 이 센터는 現在 第一, 第二研究部로 구성되어 科學技術 진흥을 위한 調查研究, 학술강연 세미나, 계몽 生活利器에 관한 教育 點檢校正, 修理 서비스를 하고 있다. 즉 제1연구부에서는 基礎科學分野에 對한 科學技術用語制定事業을 벌리고 있다. 작년 6월 20일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基礎科學分野 10個 學會에서 심의 제정된 用語를 수집차의 學會자체 심의

회의와 52회에 걸친 審議分科委員會에서 재수정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장 有効적절한 用語를 審議制定하였는데 科總은 10회의 심의위원회를 가졌었다.

제2연구부에서는 작년에 國立研究機關(35個機關)과 大學附設 研究機關(92個기관) 自然科學界 大學의 各學科(27個學科)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研究能力 實態를 調査했다. 금년 5월부터는 忠淸南道 37個 業體를 대상으로 하여 工產品 生産體制, 品質管理, 能率, 開發 및 試作, 一人一拔의 習得여부를 研究內容으로 삼고 있다. 또한 地方特產物 開發技術의 研究도 하고 있으며 對象지역은 忠淸南道로 그 地方特產物의 實態를 調査하여 特產物의 生産開發 및 科學化, 特產物의 工產品化를 꾀하고 있다.

#### ▲▲ 새마을운동에 앞장 ▲▲

더우기 最近에는 1000弗 國民所得과 100억弗 수출목표를 향한 重化學工業國의 構體인 計劃 및 產學協同의 효율적 方案을 研究 提示하는 한편 全國적으로 波及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을 적극 지원코져 科總內에 “새마을 기술봉사단”을 조직하고 忠南 아산군 온양읍의 좌부리 마을을 選定하여 農漁村의 營農 技術指導에 앞장서고 있다.

金允基 會長을 團長으로 하는 새마을 기술봉사단은 農水產, 工學, 保健衛生, 綜合分野의 四部門에 총 50여명의 指導委員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제1기술지원단은 沈鍾燮박사, 제2기술지원단은 金正秀 교수, 제3 기술지원단은 洪文和박사, 제4 기술지원단은 趙慶哲 博士가 단장이되어 힘쓰고 있다.

1972년 4월 21일 “科學의 날”에 結成된 새마을 기술봉사단은 農漁村을 爲한 새마을 기술교본을 發刊 보급한바 있으며 이 책은 全國의 새마을 지도자에게 배부되어 기술 이식에 기여했다. 수록 내용은 ① 공동목욕탕 ② 위생우물 ③ 부엌개량 ④ 변소개량 ⑤ 축사개량 ⑥ 공동빨래터 ⑦ 하수구 개수 ⑧ 새마을 나무심기 I ⑨ 새마을 나무심기 II ⑩ 농경지 정리법의 10개 종류이었다.

금년도에는 시범 새마을 부락을 育成키 위해 忠南 온양군 아산읍 좌부리 마을을 선정하여 지도위원들이 직접 出張하여 農漁民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직접 지도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 5월 25일에서 27일까지 3일간 제1차 現地技術指導를 했으며 이어서 8월 4일에는 제2차, 8월 22일에는 제3차 9월말에는 4차 기술지도를 실시할 計劃으로 있다.

× × ×

1966년에 創立을 본 科總은 과거 7년을 지내는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던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科總의 끈질긴 努力은 오늘의 發展을 갖게 되었으며 科學風土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유신헌법 123條에 “국민경제의발 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 진흥되어야 한다”고 밝혀 科學技術에 대한 國家的인 결의를 뚜렷이 하고 있다.

또 금년초 대통령 年頭敎書에서 “全國民의 科學化운동”이 제창되었다. 이제 科總은 創立 7周年을 맞았다.

앞으로는 이 國家의 使命을 다하는데 더욱 분발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하겠다.